

이달의 이슈 | 01

서울시 창조계층의 규모와 주요 특징



김 범 식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kbs@si.re.kr

1. 창조계층은 도시와 지역발전의 핵심 추진세력

21세기 들어서도 성장잠재력 약화가 지속되면서 국가나 도시 모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 창조성에 기인한 무형자산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창조계층(creative class)’이 국가나 지역발전의 핵심 추진세력(key driver)으로 부상했다. 이는 도시의 경제성장이 단지 인적자본의 밀집에서 생기는 생산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창조계층이 보유한 창의적 능력인 창조자본(creative capital)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창조계층은 미국의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도시의 경제성장은 창조계층에서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존 이론이 “기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한다(People-to-Job)”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창조계층이론은 “창조계층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한다(Job-to-People)”는 점에서 시각 차이를 보인다. 플로리다는 다양하고 관대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통계학 박사
- 지방재정학회 이사, 경인행정학회 이사, 경기종합지수 자문위원(통계청) 등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대한 영향 분석(2012),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2013), 서울시 관찮은 일자리(Decent Job) 실태분석과 정책방향(2014) 등

어에 개방적인 곳을 선호하는 창조계층에 의해 도시의 경제 발전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그는 창조계층이 정착하여 도시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등은 세계 수준의 대학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창조계층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용과 개방성이 부족해 실패했다. 마이애미와 뉴올리언스도 다양한 생활양식의 중심지이지만 취약한 기술기반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워싱턴 DC, 오스틴과 시애틀 등은 3T를 모두 갖추면서 성공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플로리다는 창조계층을 직업 특성에 따라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핵심 창조계층은 과학자, 공학 전문가 등 주로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쉽게 전파되고 유용하게 쓰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 등을 만들어 내는 계층이다. 창조적 전문가는 주로 법률, 의료 관련 직종 등에 종사하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지식체계에 의존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층이다. 보헤미안은 작가, 디자이너, 배우 등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들로 도시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보여주는 계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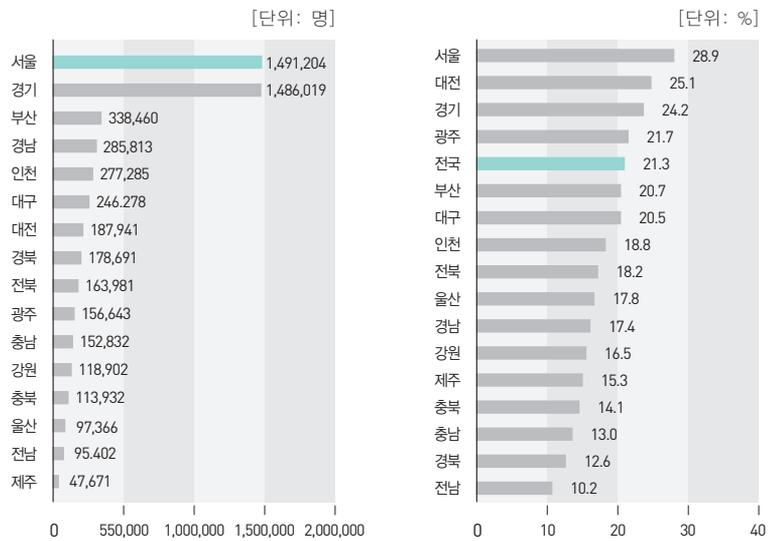
〈표 1〉 창조계층의 유형과 개념

구분	개념	한국표준직업분류로 본 해당 직업
핵심 창조계층	쉽게 전파되고 유용하게 쓰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 등을 창출	과학 전문가 및 관리자,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창조적 전문가	복합적인 지식을 다루면서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	공공 및 기업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리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보헤미안	문화와 예술분야에 종사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주 한국표준직업분류로 본 직업은 중분류 기준임

2.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16개 시·도 중 1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A형)’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149만 1,204명으로 전국의 27.4%를 점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148만 6,019명으로 서울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고, 부산이 33만 8,460명, 경남이 28만 5,813명 등의 순이며, 제주도가 4만 7,671명으로 16개 시·도 중 규모가 가장 작다.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16개 시·도 중 가장 크고, 입지상(LQ)으로 본 창조계층의 집중도도 1.4로 기준치 1을 웃돈다. 16개 시·도의 창조계층 규모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2강 14弱’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2013년 시·도별 창조계층 종사자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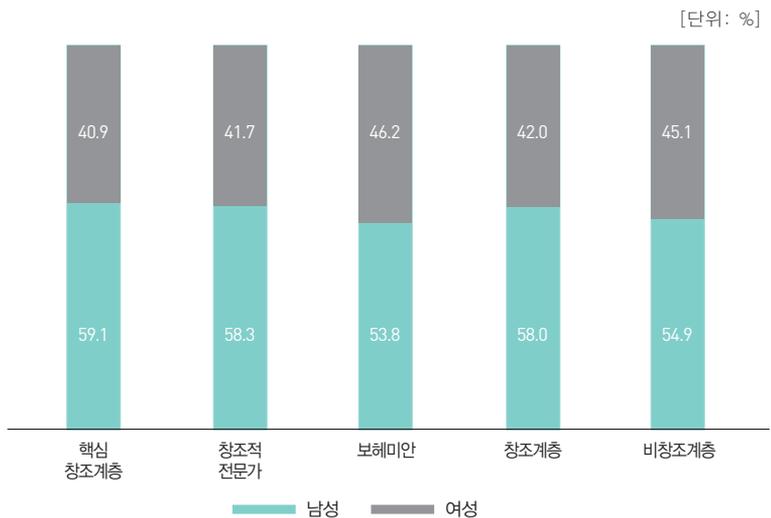
또한 서울시 전체 취업자 중 창조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8.9%로 전국 평균을 7.6%p 상회하고,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흥미로운 점은 창조계층의 규모와 각 지역 내 창조계층의 비중 순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창조계층 규모는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순이지만, 지역 내 창조계층의 비중은 서울, 대전, 경기 등의 순이다. 특히 창조계층 규모가 서울보다 약간 작았던 경기도가 지역 내 창조계층 비중은 24.2%로 3위로 하락했고, 대전은 창조계층 규모가 7위로 중위권이지만 창조계층 비중은 25.1%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경기도가 전체 취업자 중 비(非) 창조계층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 창조계층보다 창조계층에 집중된 고용구조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은 국내에서는 1위이지만, 54개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36위로 낮은 수준이다. 비교 대상인 54개 해외

주요 도시 중 오슬로(46.8%)를 비롯해 상위 9개 도시의 창조계층 비중은 모두 40%대에 달한다.

창조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서울시는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가 각각 44.1%, 40.6%, 보헤미안이 15.2%를 차지해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보헤미안 인력은 서울 내 비중은 낮지만, 전국 보헤미안 인력의 41.6%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다른 시·도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서울시 창조계층은 2008년 133만 647명에서 2013년 149만 1,204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취업자 증가율(1.0%)을 1.3%p 웃도는 수준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핵심 창조계층(1.2%), 창조적 전문가(2.5%)보다 보헤미안(5.2%)의 인력 증가세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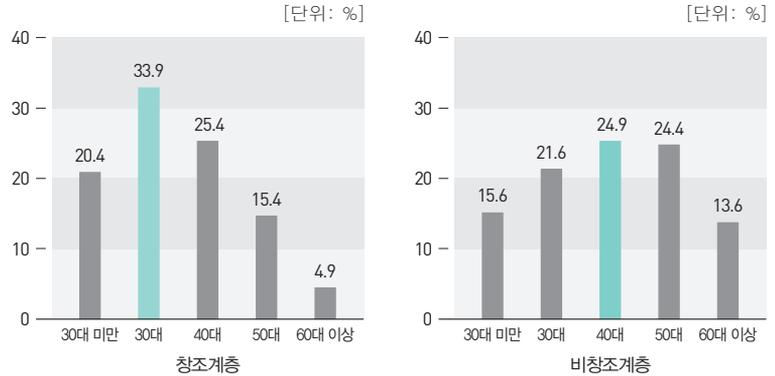
3. 서울시 창조계층은 비 창조계층과 차별적 특성 보여

서울시 창조계층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보면 비 창조계층과 차별적이다. 첫째, 서울시 창조계층의 성별 구조는 비 창조계층에 비해 남성 우위적이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58.0%가 남성으로 이는 비 창조계층의 남성 비중을 3.1%p 상회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보헤미안보다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에서 남성 우위적 구조가 더 뚜렷하다. 그러나 2008~2013년 중 서울시 여성 창조계층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남성(1.2%)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여성 창조계층은 주로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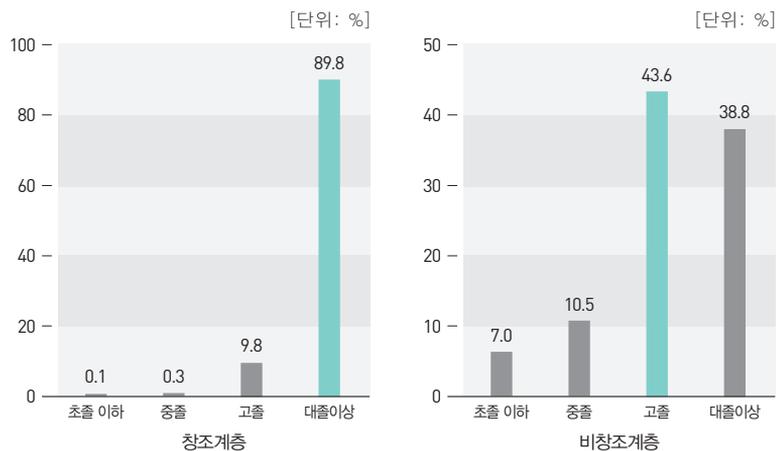
[그림 2]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 창조계층의 성별 구조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30대가 33.9%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 25.4%, 30대 미만 20.4% 등의 순이다. 이러한 연령별 구조는 40대가 24.9%로 가장 많고, 50대 24.4%, 30대 21.6% 등의 순인 비 창조계층과 대조적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은 30대가, 창조적 전문가는 40대가 많은 구조이다.



[그림 3]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 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조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비 창조계층의 2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비 창조계층의 학력별 구조는 고졸이 43.6%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이 38.8%이지만 중졸도 10.5%에 달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에서 대졸 이상 비중이 92.7%로 가장 높고,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에서 대졸 이상 비중은 각각 88.0%, 8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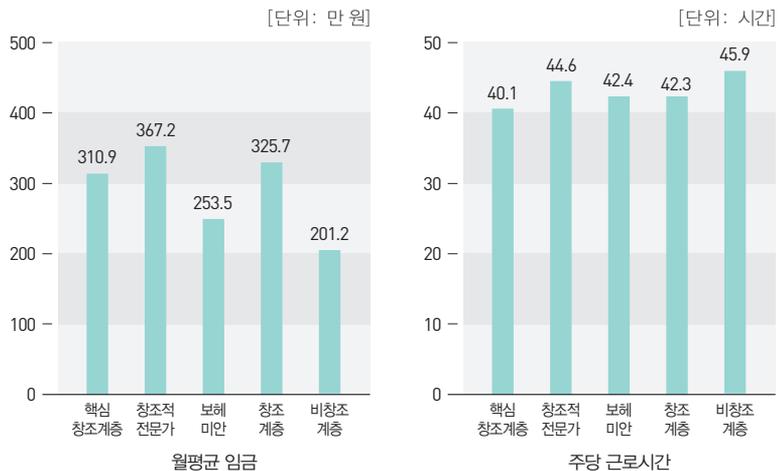


[그림 4]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 창조계층의 학력별 구조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83.1%가 상용직으로 비 창조계층(54.5%)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고용안정성은 창조계층 유형별로 차별적이다. 상용직 비중은 창조적 전문가가 90.2%로 가장 높고,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의 상용직 비중은 각각 79.6%, 73.9%로 상대적으로 낮다. 창조계층의 상용직 비중은 2008년 84.6%에서 2013년 83.1%로 1.5%p 하락했다. 특히 보헤미안 인력은 지난 5년간 임시직 종사자가 연평균 13.2% 증가해 임시직 비중이 6.2%p나 확대되었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은 325.7만 원으로 전국(300만 원)보다 8.6% 많고, 서울시 비 창조계층(201.2만 원)에 비해 1.6배 많다. 이는 창조계층이 높은 경제적 기회를 가진다는 플로리다 이론과 부합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가 367.2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핵심 창조계층은 310.9만 원, 보헤미안은 253.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2008~2013년 중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창조적 전문가 2.6%, 보헤미안 2.3%, 핵심 창조계층 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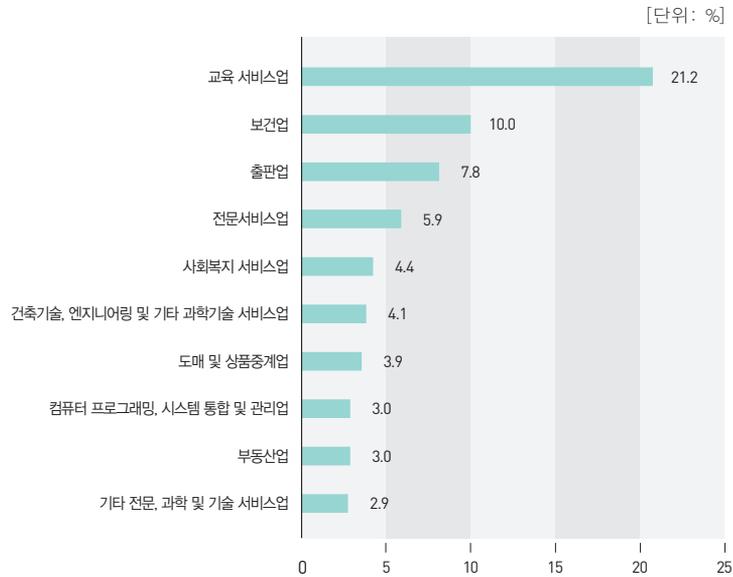
월평균 임금과 달리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은 42.3시간으로 비 창조계층(45.9시간)에 비해 3.6시간 짧다. 플로리다 이론과 달리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이 비 창조계층보다 짧은 것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는 창조적 전문가가 44.6시간으로 가장 길고, 보헤미안은 42.4시간, 핵심 창조계층은 가장 짧은 40.1시간이다.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은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추세이다.



[그림 5]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

4. 서울시 창조계층은 교육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밀집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총 75개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등 4개 산업에 전체 창조계층 인력의 44.9%가 밀집되어 있다.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가 1% 이상인 산업은 총 75개 산업 중 24개이고, 이 중 10% 이상은 2개, 2% 이상은 16개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 산업에 밀집되어 있다. 전국은 서울에 비해 출판업의 밀집도가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그림 6]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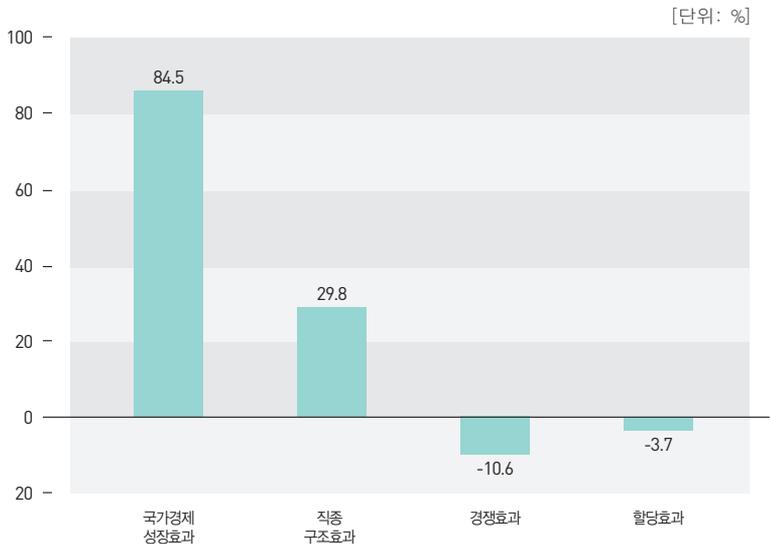
창조계층 유형별로도 3~5개 산업에 집중된 형태이나, 밀집된 산업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핵심 창조계층은 교육 서비스업에만 44.4%가 밀집되어 2위인 출판업(12.2%)과 32.2%p의 격차를 보였고, 창조적 전문가 는 보건업이 23.8%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전문서비스업도 10% 내외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헤미안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밀집도가 17.3%로 가장 높지만, 출판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도 10% 이상으로 특정 산업에 집중된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 순위 변화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이 각각 6년 연속 1위, 2위를 유지했다. 출판업은 2008년 4위에서 2013년 3위로, 전문서비스업은 6위에서 4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4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교

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등에 창조계층이 많이 몰린 가운데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으로 창조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전 산업의 창조계층 평균 비중(28.9%)과 산업 특화도(LQ)를 기준으로 75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방송업,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 14개 산업이 서울형 창조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을 변이할당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증가는 80% 이상이 국가경제 성장효과이고, 29.8%는 직종구조효과로 나타나 해당 직종의 비교우위나 전문화 등을 보여주는 경쟁효과와 할당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만 경쟁효과와 할당효과가 정(+)의 효과를 보이고,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에서 경쟁효과와 할당효과는 모두 부(-)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창조적 전문가에서 경쟁효과와 할당효과는 각각 -41.3%, -14.3%로 지역 경쟁력에 의한 고용증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조적 전문가와 핵심 창조계층은 국가경제 성장효과가 가장 컸으며, 보헤미안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직종에 집중된 효과를 보여주는 직종구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2008~2013년 중 변이할당 모형에 의한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

5. 창조계층의 양적·질적 확대 도모

서울시 창조계층의 규모는 국내에서는 1위이지만,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요인이 주로 국가경제 성장 및 직종구조 효과로 서울 고유의 비교우위 및 전문화 등에 기인한 경쟁력 요인은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인력양성 등을 통한 직접 확대 전략과 산업육성 등을 통한 간접 확대 전략을 통해 창조계층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직접 확대 전략의 하나로 비 창조계층 인력을 창조계층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서울에 특화되어 있지만, 창조계층 비중이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등 도심형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적절한 분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해온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 보완 여부, 신규 사업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교육기관 주도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간접 확대 전략의 하나로 창조계층의 밀집도가 높고 특화도도 높은 산업을 산업정책과 연계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 개발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 어메니티(Amenity) 개선을 통해 창조계층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주된 활동무대는 자연자원이나 세금우대 조치 등과 같은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창조계층이 필요로 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인프라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조계층은 박물관, 전시관 같은 전통적 문화공간보다 카페나 레스토랑 등 캐주얼한 도시 내 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1. 구문모·박정수, 2014,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통계적 산출과 지역발전 정책의 함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1호.
2. 김범식·김묵한·장윤희, 2015,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실태와 특성분석』, 서울연구원.
3. 김영수, 2013, “창의계층의 산업별·지역별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3년 11월, 산업연구원.
4. 김흥주·박기풍, 2010, “도시의 창조적 계급·기술·관용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5권 제1호.
5. 리처드 플로리다, 2011, 『제3차 세계 리셋』, 김민주·송희령 옮김, 비즈니스맵.
6. 리처드 플로리다, 2011, 『신창조계급』, 이길태 옮김, 북콘서트.
7. 서울산업진흥원, 2015, “2015년도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계획”, 서울산업진흥원.
8. 오은주·김도형, 2014,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 이대창, 2013, “창조직업과 지역발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7권(1).
10. 이훈·오동훈, 2011, “플로리다 창조계급론의 국내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임금구조를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제17집 제3호.
11. Esteban-Marquillas, J. M., 1972, “A reinterpretation of shift-share analysis”,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2, no.3.
12.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13. Florida, R. 2003,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City & Community』, vol.2, no.1.
14. Florida, R., 2004, Cities and Creative class, Routledge.
15. Florida, R., 2007,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16. Fritsch, M., and Stuetzer, M., 2012, “The geography of creative people in Germany revisited”, Jena Economic Research papers.
17. Gabe. T., 2006, “Growth of Creative Occupations in U.S. Metropolitan Areas: A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vol.37, no.3.
18. Herzog. H. W. and R. J. Olsen, 1977, “Shift-Share Analysis Revisited: The Allocation Effect and The Stability of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17, no.3.
19.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1, Creativity and Prosperity: The 2010 Global Creativity Index.
20.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3, Creative and Diverse: Ranking Global Cities.